

건설동향브리핑

제474호 (2014. 8. 18)

■ 경제 동향

- 2014년 상반기 분양 물량 전년 동기 대비 32.6% 증가

■ 정책 · 경영

- 빅 데이터에 대한 건설기업의 인식 실태
- 주택 공급시장, 중 · 장기적 연착륙 방안 마련 필요

■ 정보 마당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시행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14년 상반기 분양 물량 전년 동기 대비 32.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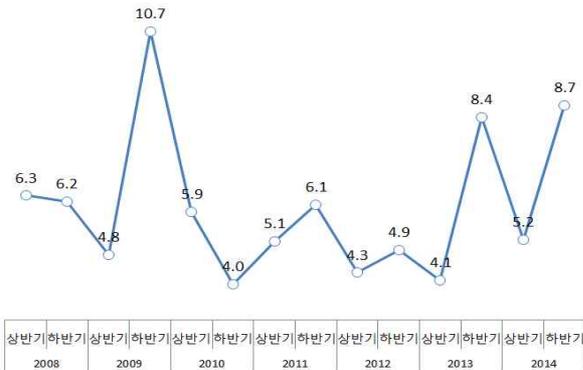
- 하반기에도 많은 물량 예정돼 미분양 증가 우려 -

■ 수도권 :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 하반기에도 분양 물량 급증 예상

- 2014년 상반기,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한 5.2만 호로, 최근 3년 간의 상반기 분양 물량 중 가장 많음.
 -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분양 물량의 증가가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음.
 - 최근 급증한 주택 건설 인·허가로 인하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분양 물량은 8.7만 호(2014년 7월 말 기준)에 달하고 있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형과 중형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대형은 감소함.
 - 최근 소형 물량의 비중이 감소하고 중형 물량의 비중이 증가함. 금융 위기 직후에는 소형의 비중이 40%를 상회하였으나, 2014년 상반기에는 소형의 비중이 31.0% 수준이 었음. 중형과 대형은 각각 58.3%, 10.7%로 나타남.

<수도권 분양 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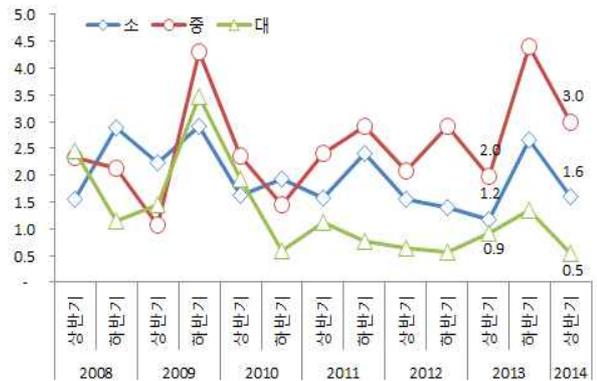
(단위 : 만 호)



주 : 2014년 하반기는 예정 물량임.
자료 : 부동산114(주)

<수도권 규모별 분양 물량 추이>

(단위 : 만 호)



자료 : 부동산114(주)

- 2014년 상반기, 수도권의 청약 경쟁률은 모두 1 : 1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1순위 에서 미달되고 2, 3순위에서 마감됨.
 - 서울 강남구, 경기 하남시 등의 지역은 10:1 수 준을 넘어섰으나, 인천 남구, 성남 수정구 등은 0.1:1 수준을 보여 지역별 편차가 심함.

<청약 경쟁률(2014.1~6)>

(단위 : 對1)

	서울	인천	경기
전체	2.6	1.2	1.5
1순위	2.1	0.2	0.7

자료 : 금융결제원

■ 지방 : 2011년부터 증가세, 하반기에 금융 위기 이후 최대 공급 예정

- 지방은 2011년부터 분양 물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지방 광역시가 3.6만 호, 기타 지방이 4.8만 호 수준을 나타냄.
 - 특히, 지방 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 상·하반기보다 많은 수준을 보임.
 - 2014년 하반기는 지방 광역시는 다소 감소하는 반면, 기타 지방은 금융 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분양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
 - 규모별로는 지방 광역시와 기타 지방 모두 60~85㎡ 이하의 물량 비중이 60%를 상회하였음. 지방 광역시는 모든 규모에서 전기 대비 증가한 반면, 기타 지방은 85㎡ 초과만 증가함.

<지방 분양 물량 추이>

(단위 : 만호)



주 : 2014년 하반기는 예정 물량임.
자료 : 부동산114(주)

<지방 규모별 분양 물량(2014년 상반기)>

(단위 : 호, %)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지방 광역시	물량	8,744	23,489	3,698
	비중	24.3	65.4	10.3
기타 지방	물량	11,709	32,031	3,856
	비중	24.6	67.3	8.1

자료 : 부동산114(주)

<청약 경쟁률(2014.1~6)>

(단위 : 對1)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체	7.5	9.3	10.3	3.5	3.5	1.4	
1순위	6.7	8.7	7.2	2.4	2.8	0.7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전체	1.3	3.1	3.1	2.2	5.4	6.5	1.9
1순위	0.4	2.3	2.5	1.4	5.0	6.2	1.1

자료 : 금융결제원

■ 건설기업, 하반기 분양 신중한 접근 필요

- 수도권·지방 모두 2014년 상반기 분양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많은 물량이 예정되어 있어 미분양 물량의 증가가 우려됨.
 - 또한, 청약 경쟁률의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실수요자인 1순위에서는 미달되지만, 2, 3 순위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상승함에 따라 투자 수요의 구매가 중요해짐.

엄근용(책임연구원 · kyeom@cerik.re.kr)

빅 데이터에 대한 건설기업의 인식 실태¹⁾

- 30대 건설기업 실무자의 50%, “5년 내 빅 데이터 관리 체제 도입해야” -

■ 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보다 많은 관심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시행한 ‘건설기업의 데이터 활용도 및 빅 데이터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소속 기업이 데이터 관리 정책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
 - 그러나, 응답자의 76%는 소속 기업의 데이터 관리 수준을 보통, 또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데이터 관리 정책이나 시스템이 현업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데이터 관리가 부실한 가장 큰 이유는 ‘회사 내에 데이터 관리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39%)인 것으로 나타났음.
 - 그 외 이유로는 ‘데이터 관리 인력의 부족’(23%),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적용성 미흡’(12%) 등이 있음.
- 응답자의 75%가 건설기업 내 데이터의 분석 활용 수준이 높지 않다고 응답
 - 응답자의 86%가 건설기업 내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의사 결정 문화가 필요하다고 인식
 - 이는 건설기업 내에서는 대부분 일부 경험자의 직관과 경험에 의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함축

■ 빅 데이터의 개념을 IT 인프라 위주로 인식

- 응답자들은 빅 데이터의 개념을 ‘데이터로부터 통찰을 얻어내는 과정’(31%), ‘대용량의 데이터 베이스’(29%), ‘거대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23%), ‘복잡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13%)으로 인식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4년 8월에 발간한 「빅 데이터에 대한 인식 실태와 향후 대응 방향」(강상혁, 김우영, 유위성) 연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시공능력평가액 30위권 내 17개 건설기업의 실무자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 빅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빅 데이터를 IT 인프라(하드웨어)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응답자의 52%).
- 빅 데이터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종합해보면 ‘크고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신속하게’, ‘의미 있는’ 정보나 통찰을 추출해내는 ‘방법 내지는 프로세스’로 요약할 수 있음.
-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방법 및 프로세스는 기존에도 존재해 왔으나, 최근 들어 그러한 데이터와 다루는 기술 차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빅 데이터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빅 데이터 관리 체제 도입 계획은 없지만, 향후 도입 필요

- 응답자의 70%는 현재 빅 데이터 관리 체제의 도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25%는 도입 계획을 갖고 있거나, 이미 도입 중에 있다고 답변
- 응답자의 50%가 늦어도 5년 안에 빅 데이터 관리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변
 - 그 중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21%, 1~2년 안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22%, 5년 안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로 나타남.
 - 언젠가는 도입해야 하지만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46%이고,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4%에 불과하였음.

■ 빅 데이터 활용 분야로 ‘리스크 관리’, ‘건설시장 분석’ 등 꼽아

- 응답자의 36%는 기업 내에서 생산되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이메일, 워드, 한글, PDF 등의 업무 문서)를 빅 데이터 분석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
 - 그 외에 비디오 및 이미지 데이터, 공간 및 지리적 데이터, 센서/장비/디바이스 데이터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건설기업의 실무자들은 빅 데이터가 리스크 관리(30%), 건설시장 분석(26%), 원가 및 재무 관리(25%), 경영 전략(24%), 입찰/계약 관련 의사 결정(23%), 마케팅(23%)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

강상혁(연구위원 · shkang@ceri.k.re.kr)

주택 공급시장, 중·장기적 연착륙 방안 마련 필요¹⁾

- 유지관리시장 및 부대 서비스시장 동반 성장 지원 필요 -

■ 우리나라 주택 가격, 지난 18년 간 낮은 변동성 보여

- 지난 18년 간,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는 낮은 가격 상승률과 변동성을 보임.
 - ※ 가장 시계열이 짧은 영국의 지수 발표 연도인 1995년을 시작 연도로, 199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8년 간의 주택 가격 변화를 분석. 일본 지수가 4월 기준으로 연간으로 발표되는 점을 고려, 매년 4월을 기준으로 연간 주택 가격의 변화를 확인
- 지난 20여 년 간, 미국, 영국, 일본,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을 연간 단위로 분석하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상승기에는 9~10% 내외의 연간 상승률을 보였으나, 우리나라는 5% 수준에서 상승함.
- 하락기에는 두 국가가 연간 5~8%까지 하락했으나, 우리나라는 3% 내외 수준에 그침.

■ 인구 구조의 주택시장 영향 커... 신축 주택의 공급 물량 감소는 중·장기적 트렌드

- 시차는 존재하지만 인구 증가가 주택 가격의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미국과 영국의 안정적인 인구 성장세가 주택 가격의 상승에 바탕이 됨.
 - 미국과 일본은 연간 인구 증가 수의 정점 이후, 14~15년의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의 상승 정점이 도래함. 영국은 인구 증가 수의 정점과 가격 상승기의 정점이 동행해 나타남.
 - 노령화 속도가 완만한 미국과 영국의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일본은 인구 감소와 함께 급속한 노령화를 동시에 겪고 있음.
- 일본의 사례를 볼 때, 1인 가구 증가가 급증하면 가구 수가 증가하더라도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가구 해체, 1인 가구 증가 등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면서 4개 국가 모두에서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어 주택 가격과 가구 수 증가와의 상관성이 약화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은 현재 1인 가구의 비중이 30%를 하회하고 있고, 1인 가구의 증가 속도도 완만함. 일본은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섰고,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가구 수의 증가만으로 시장 안정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4년 8월에 발간한 「통계로 보는 국제 주택시장 비교 : 미국·영국·일본·한국을 대상으로」 연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였으며, 전체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 수록되어 있음.

- 우리나라도 영국 및 일본과 같은 가용 토지의 제약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 트렌드인 신축 주택 공급 물량의 축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은 가용 토지의 제약이 적어 가격에 비교적 탄력적으로 주택 공급이 조절되어 옴.
 - 반면, 영국과 일본은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의 중·장기적 감소세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40년 간 신규 공급 물량이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감소함.

■ 중·장기적 위험 요인 관리해야

- 향후 우리나라 주택 가격의 흐름을 특정 국가(미국식, 혹은 일본식 모델)의 모델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험 요인은 명확하여 위험 관리가 절실함.
 - 미국은 높은 공실률에도 공급이 지속되었고, 금융시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시장임.
 - 일본의 신규 주택 공급 여건은 우리나라와 유사함. 그러나, 일본의 버블 당시 공가율은 9.0%를 상회하였으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가율은 5.4%로 여전히 낮음.
 -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인구 구조적인 변수로 보면, 일본식 모델로 이행할 위험 요인이 존재하나, 주택 금융의 발달로 유동성에 의한 미국식 가격 상승의 가능성도 존재함.
 - 다만, 인구 감소, 노령화, 1인 가구 증가 등과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신규 주택시장을 축소시키는 위험 요인은 명확함.
- 우리나라도 신축 주택시장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체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유지관리시장의 성장세는 느릴 수 있어 연착륙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미국은 신축 시장의 규모가 유지됨에 따라 유지보수시장보다는 주택산업 관련 부대 서비스시장의 성장세가 현저함.
 - 영국은 강력한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유지보수시장의 비중이 높음. 또한, 경기 변동성은 낮아 비교적 안정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일본은 신축 주택시장의 축소를 리폼시장이 대체하고 있지 못하며, 성장세도 완만함.
 - 일본의 경험에서 보듯이 신축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지관리시장의 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신규 주택시장의 축소에 대비해야 할 것임.
 - 안정적인 유지관리시장과 부가가치가 높은 주택산업 관련 부대 서비스시장의 동반 성장과 연착륙을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시행¹⁾

- 2014.7.1부터, 보고 대상을 기존 '4일 이상 요양 재해'에서 '3일 이상 휴업 재해'로 변경 -

■ 변경의 개요

- PQ(Pre-Qualification, 입찰자격 사전심사)의 신인도와 함께 최근 중요도가 높아진 안전 행정부의 계약 기준(가산점 최대 4점, 30억원 이상으로 확대, 2014.8.5 시행)에 포함되는 '산업 재해'의 보고 기준이 변경되었음.
- 구체적으로 보고 대상, 제출 서류, 보고 방법 등이 변경되었음.
 - 보고 대상 :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 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 제출 서류 :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가능
 - 보고 방법 :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 →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아래서 설명)

■ 보고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 기간 산정 방법

- 휴업 기간의 산정 및 휴업 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 휴업 기간을 판단할 때 산업 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휴업 일수에 재해의 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 등은 포함됨.
-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 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 대상이므로,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이더라도 보고 대상이 아님.
- 만약 산재 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하거나, 휴업을 불연속으로 부여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지게 됨.

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2014.7.1 참조

■ 재해 원인에 따른 보고 대상 여부 및 보고 기한 판단의 기준

- 운동 경기·체육 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 보건 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범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의 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 대상 재해임.
 - 만약 근로자는 산업 재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적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업 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의 방법에 따라 산업 재해 여부를 먼저 판단함.
- 산업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 산재 발생 보고 방법

- 산업재해조사표는 i)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ii) 우편 송부, iii) 팩스 송부, 또는 iv) 웹사이트(www.moel.go.kr→민원 마당→민원 신청→서식 민원→산업재해조사표)에 입력, 또는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산재 발생 보고의 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는 제출 기한 마지막 날 근무 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에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함.
- 재해 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 근로자 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의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심규범(연구위원 · gbshim@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8. 12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정책국 주최, '종합심사낙찰제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대책 회의'에 건설정책 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LH공사 최초 시범 사업의 저가 투찰 원인 분석 등
8. 13	한국노동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제도개선포럼 총괄 분과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여 - 1차 논의 결과 검토
	국민경제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산업 관련 간담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참여 - 현장 애로 사항 청취 및 개선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기준과 주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관계 부처 합동 TF 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최석인 연구위원 토론자로 참여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 동향 관련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이홍일 연구위원 토론자로 참여

■ 최근 발간물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이슈포커스	<p>통계로 보는 국제 주택시장 비교: 미국·영국·일본· 한국을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주택시장의 흐름과 방향성을 통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다양한 가능성을 고찰함. - 각기 다른 시스템과 다른 역사적 발전 과정을 거쳐 온 미국, 영국, 일본 등을 비교 국가로 선정하여 살펴봄. • 지난 18년 간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낮은 가격 상승률과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18년 간(1995년 대비 2013년 상승률) 주택 가격 상승률을 확인하면, 영국(160.3%), 미국(119.0%), 우리나라(69.5%)의 순으로 높게 상승했고, 일본은 44.6% 하락함.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은 미국과 영국에 비해 상승기의 상승률은 낮고, 하락기의 하락폭은 작은 것으로 나타남. 오히려 두 국가에 비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으로 해석됨. • 시차는 존재하지만, 인구 증가가 주택 가격의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미국과 영국의 안정적인 인구 성장세가 주택 가격의 상승에 바탕이 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은 연간 인구 증가 수가 정점을 형성한 이후, 14~15년의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의 상승 정점이 도래하였고, 영국은 인구 증가 수의 정점과 가격 상승기의 정점이 동행하여 나타남. - 일반적으로 가구 수가 주택의 직접적인 수요로 판단되나,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모든 국가에서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 '2014년 CERIK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도서 회원 혜택 :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정책 연구 자료 및 각종 연구 발간물, 정기 간행물 우편 수령, 수시 개최되는 각종 세미나 등에 대한 정보 수신
- 문의 : 기업지원팀(TEL. 02-3441-0848)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실버 세대에 진입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보면 의외로 이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친구들이 적지 않다.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산속에서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부러운 무언가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 가식 없는 행복의 모습일 것이다. 지독한 아픈 상처를 지녔고, 그야말로 빈털터리인 그들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면 속 주인공들을 보면 고대 헬레니즘의 쾌락주의 철학이 떠오른다. 쾌락주의자들이 말하는 쾌락은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감각적·순간적 쾌락이 아니다. 쾌락주의의 창시자 에피쿠로스는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정이야말로 최고의 쾌락이라고 말했다. 쾌락주의 철학은 우리에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오늘날 행복론의 대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이는 ‘몰입(Flow)’이 곧 행복이라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 통제권을 갖고 자신의 일에 몰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수면, 또는 TV 시청과 같이 수동적으로 즐기는 쾌락과는 상반된 것이다.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면서 그로부터 자신이 성장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이는 이런 것으로부터 느끼는 행복감은 창의성과도 연결된다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최고의 선은 곧 행복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고의 행복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행복은 어떤 지위나 상태가 아니라, 행동 그 자체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행복이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이다.

행복하려면 행복을 찾지 말라는 말이 있다. 문득 돌아보면 행복했던 지난 시절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 시절 우리는 그것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지나왔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명예를 쌓는다고 행복이 비례하여 커지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건설경제, 2014. 7. 17>

윤영선(연구위원 · ysyoon@cerik.re.kr)